

[재경조찬] 2018.12.10 월요일

FOCUS ON

- 1. 매일경제신문**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장진궈(張軍擴),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2019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018년보다 낮게 전망.** 디레베리징 및 부채통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나, 취약점 보완 강화가 기초시설 투자 위축으로 인한 일부 압박을 해징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 투자의 성장도 제한을 받을 것이며,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 또한 안정속 완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 증상중국(券商中國)** : 최근, **시중은행들이 백억위안 급의 자본보충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 전환사채 발행 실적 부진과 발행 난이도 상승에 따라 은행들은 신사업 개발 특히 자산관리자회사(理財子公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현단계 실물경제와 소규모대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출규모가 늘어나고 상업은행자본관리방법 과도기 만료로 은행의 자본충족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자본 보충 수요가 여전히 절실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임.
- 3. 중신경위(中新經緯)** : 최근, 선전(深圳) 핑후자즈오예(平湖佳兆业) 등 분양단지 입주민들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이자가 같은 기간 시장금리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신고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여러 분양단지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이자는 개발업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고 있음. **개발업체가 주택담보대출이자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개발업체의 자금 압박이 심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협력은행으로 선정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임.
- 4. 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 : 2018년을 뒤돌아 볼 때, 중앙기업개혁 ETF와 전략적투자자 지향성 펀드를 비롯하여 '히트를 친 펀드'는 저조한 시장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음. 피동적 투자는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도 권익 ETF가 공모펀드의 중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임.

1. 거시경제

1.1 통계국 : 11 월 CPI 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기대비 2.2% 상승. 상승폭은 전월대비 0.3 포인트 하락했고, 5 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PPI 는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동기대비 2.7% 상승. 상승폭은 전월대비 0.6 포인트 하락. 4 분기 인플레이션 확대 리스크가 낮게 평가되고 PPI 가 반락하면서 공업기업의 이익이 축소되었다는 게 화타이(華泰)증권의 분석임.

1.2 제일재경(第一財經) : 녹지그룹 장위량(張玉良), 혼합소유제개혁에 있어 **국유자본의 비중을 50%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고 지적.

1.3 평파이신문(澎湃新聞) : 상하이·선전·홍콩 3 대 증권거래소, **WVR 회사의 강구통(港股通) 도입방안에 대한 합의 타결** 공고.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수한 후 시장에 공포할 계획이며 관련 규칙은 2019 년 연중에 실시 예정.

1.4 국무원 빈곤구조판공실 류융푸(劉永富) : 개혁개방 40 년 이래, **7 억명이 넘는 농촌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 빈곤발생율은 1978 년의 97.5%에서 2017 년의 3.1%로 축소**, 이는 중국이 만들어 낸 인류 빈곤탈출 역사의 기적.

1.5 중신경위(中新經緯) : 올해, **15 개 성(省)에서 최저급여기준 인상이 이뤄졌음**. 그중에서 쓰촨(四川), 광시(廣西), 시장(西藏) 등 5 개 지역의 인상폭이 200 원 상회. 충칭(重慶)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300 위안 인상.

1.6 하이통(海通)증권 선위건(荀玉根) : **A 주 시장이 강약세 주기의 말기에 놓여 있고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전략적으로 낙관적**. 바닥권을 다지는 시기에 고배당주와 부동산주 보유 및 선진제조(5G+신에너지), 서비스·소비(의료보건+보험) 관련 주식 매입 권고.

2. 부동산

2.1 21 세기 : 주택시장의 열기가 수그러들고 있고, 2019 년은 사라져버진 기회가 다시 찾아올 날을 기대하는 한 해. 안정속에서 완화되고 변화하는 한 해로, 여유로운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 '안정'은 모든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고, 2019 년의 주택시장 또한 '거래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0%대 구간에 진입.

3. 증시

3.1 광파(廣發)증권 다이강(戴康) : 2019 년, 기업의 수익 증가율 하락 및 금리 하락으로 A 주 시장의 주요 갈등이 리스크 선호도 하락에서 기업 수익율 하락으로 전환될 전망.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바닥을 치는 시점은 정책의 헤징 강도와 기업 수익율 하락 속도에 의해 결정. 2018 년의 전반적인 하락세와는 달리 2019 년에는 구조적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 영리 역주기 및 정책 역주기 품종 매입 권고.

4. 업계 동향

4.1 신화통신 : 선전(深圳)공항 이번달 부터 국내 공항 최초로 '차별화 된 여객 보안검색 모델' 실시. 안전 신용이 양호하고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여객은 공항 내에 설치된 익스프레스 통로에서 보안검색을 받게 함으로써 보안검색 시간 단축.

4.2 헬로추싱(哈囉出行) COO 한메이(韓美) : 나쁜 업종은 없고 오로지 나쁜 기업만 있되, 공유자전거는 보기도문 색시한 업종이라 평가. 첫번째, 이용자 수가 많음. 두번째, 친환경적·경제적·편리적인 면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단거리 이동 해결방안은 없음.

4.3 중국신문망(中新網) : 소비자들의 영수증 획득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둥(廣東)성 세무국은 기존의 성공적인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택스 체인(稅鏈)' 블록체인 전자영수증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광저우(廣州)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영수증(통용 영수증) 발행을 실현하고 '결제 - 영수증 발행 - 비용정산' 절차 관통.

4.4 신화통신 : 근년래, 온라인교육시장이 우후죽순지세로 성장하고 있긴 하나, 사실상 온라인교육기구들이 홍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지적. 돌연적인 영업정지와 잠적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온라인교육기구의 무허가 영업과 온라인교육기의 자금에 대한 감독관

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너무 앞서가고 있는 학과류 교육 또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평가. 관련부서가 조속히 해당 업계에 대한 전문적인 법규와 조례를 출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4.5 포브스 잡지 : 2018년 You Tube 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유튜브 스타' 순위 발표. **7살 미국소년 Ryan 은 2,2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올해 최고 유튜브 스타로 등극.** Ryan의 부모는 지난 2015년 3월 'Ryan Toys Review' 채널을 열었고, 현재 이 채널 구독자는 1730만 명, 조회수는 약 260억 회에 달하며, 가장 인기가 높은 동영상은 16억 회의 조회수 기록.

4.6 신화통신 : **내몽고, 직업기능교육에 대한 자금투자 확대 계획 발표.** 연합운영 등 방식으로 각 기(旗)·현(縣)(시·구)마다 최소 1개의 적절한 규모의 종합직업교육훈련기지를 설립하여 현지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국가급 및 자치구급 고급기능인재교육훈련기지를 대상으로 500만위안 및 100만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4.7 허난성 지질광산탐사국 : **제 1 탐사원(院)이 허난성 저촨현(浙川縣)에서 특대형 흑연광을 발견했다고 발표.** 단일 광산 지질원 저축량이 허난성 최고기록 갱신, 흑연 자원량은 1,481.55만톤.

4.8 21세기 : **1개월 전, 중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Gilead Sciences의 B형 간염 치료제 뱀리디(Vemlidy)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 뱀리디(Vemlidy)는 성인과 청소년의 만성 B형 간염(HBV)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FDA의 출시허가를 받은 B형 간염 치료 신약임.

5. 산업 데이터

5.1 양시망(央視網) : 산둥(山東), 간수(甘肅), 내몽고 등 지역의 **양고기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올랐으며 그 상승폭이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바오터우(包頭)시 상지엔(興建) 농산물시장의 한 관계자는, 재고량이 과거 동기간대에는 2,000톤인 것에 비해 올해에는 1,000톤에 불과하고 양력설,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양고기 소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5.2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 : 현재 전국적으로 박스오피스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성장율이 영화관 개수와 스크린 수 증가율에 많이 뒤쳐

져 있다고 보도.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영화관 개수는 향후 5년 사이에 다소 줄어들 것이고, 2022년 영화방영사 개수는 25개로 예측되며**, 박스오피스 수입은 상위 10위권 안의 방영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5.3 중국신문망(中新網) : 9월 기준, **글로벌 인공지능기업 개수가 5,159개로 집계되었고, 중국은 1,122개(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 제외)로 2위 차지.** 베이징은 445개로 세계에서 인공지능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로 등극. 2018년 상반기,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용자규모는 435억 달러에 이르렀고, 중국의 규모는 317억 달러로 글로벌 용자규모의 3/4 이상 차지.

5.4 신화통신 : 전문가들은 근년래 중국의 GDP에 대한 디지털 경제의 기여도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고 평가. **2035년에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발굴과 정밀한 분석이 정부의 의사결정과 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분출시킬 것으로 전망.

5.5 제일재경(第一財經) : 2년 넘게 추진되어 온 289개 브랜드에 대한 일치성 평가 마감일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12월 2일까지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19개에 불과해** 그 완성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업계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일치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5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치성 평가 정책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

5.6 Mysteel : 지난주 **중국 현물 철강재 가격종합지수는 전주대비 2.31% 상승한 143.28로 마감.** 철강재 이윤이 대폭 축소되고 생산시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급업체들이 적극적인 판매 공세를 벌이고 있음. 단, 연말에 재고가 줄어들고 11월에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시장가격이 요동치며 약세를 이어갈 전망.

5.7 신화통신 : **랴오닝(遼寧)성, 민영기업 발전 지원 금융기구 장려자금을 설립** 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금융기구를 장려하는 정책 출범. 랴오닝(遼寧)성은 은행기구의 민영기업 대출 잔액 등 기준에 따라 은행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단일 은행기구에 대한 최고 장려금액은 5,000만 위안까지 가능.

6. 기업뉴스

6.1 신경보(新京報) : 2018 년에 들어서서 **최소 9 개 회사가 계약분쟁으로 ofo 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물류, 부동산 임대, 광고비용, 대금 체불 등 다양한 사유와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 사건은 화해로 끝났고 일부는 여전히 심리 중. 이외에도 ofo 는 여러건의 노동계약 분쟁에 연루되어 있음.

7. 자본 동향

7.1 상하이증권보(上證報) : 지난주, 여러 시장기구들이 연차총회를 소집하여 내년 비철금속 품목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 진행. **대부분 시장기구들은 내년 거시적 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황금 품목의 시세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

7.2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 : 올해에 들어서서 **1,283 개 회사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했으며, 누계 발행금액은 580.5 억위안에 도달.

7.3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 2018 년 12 월 26 일(수요일)부터 **SC1901 계약의 최대 승락폭을 8%에서 10%로 조정.**

7.4 지난주 금요일, 위안화 역외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은 0.0567% 상승한 6.8798 에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9188% 상승. 위안화 중간가격은 0.0948% 하락한 6.8664 를 기록했고, 주간으로는 0.9992% 상승.

7.5 신삼판(新三板) : 지난주(12.3~12.7), **신규 상장기업 수는 16 개**로 전주대비 8 개 증가. 거래액은 전주대비 3.96% 증가한 15.04 억위안 기록. 현재 신삼판 상장기업 수는 10,786 개.

7.6 상하이증권거래소 : **상장기업 수는 9,763 개**로 N 판(창업판) 200 개, E 판 440 개, Q 판 9,123 개 포함. 상장기업 수는 전주대비 2 개 증가.

8. 국제뉴스

8.1 중국신문망(中新網) : 영국 의회, 11 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 진행 예정.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반수 이상이 유럽 연합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답을 했고, 대부분 국민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8.2 **신화통신** :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통상구인 만주리(滿州里) 세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이 만주리(滿州里) 통상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2013년의 32%에서 69%로 증가했음.
- 8.3 **지난주 금요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4% 하락한 24388.95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으로는 4.50% 하락.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3% 밀린 2633.08로 장을 끝냈고, 주간으로는 4.62%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5% 하락한 6969.25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4.93% 하락.**
- 8.4 **지난주 금요일, 영국 런던 증시에서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 오른 6778.11로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2.94% 하락. 독일 프랑크루트 증시에서 DAX30 지수는 전일대비 0.21% 하락한 10788.09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으로는 4.15% 하락.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 CAC40 지수는 전일에 비해 0.68% 오른 4813.13으로 장을 마쳤고, 주간으로는 3.81% 하락.**
- 8.5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0.7% 오른 1252.60달러로 거래를 마침으로써 7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간으로는 2.2% 상승함으로써 8월 24일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 시장 파동폭 확대 및 지정치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투자자들의 자산배치가 황금 쪽으로 기울고 있고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값에 호재로 작용.****
- 8.6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대비 배럴당 2.18% 상승한 52.61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으로는 3.3% 상승. 2월분 북해산브렌트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2.68% 상승한 61.67달러로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3.7% 상승. 에널리스트들은, 유가가 단기간 내에 급상승한 후 **앞으로의 시세는 여전히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에 달려있다고 분석.****